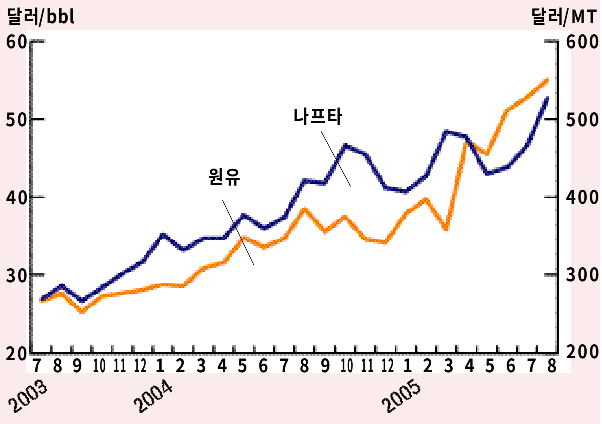
나프타와 수익성의 함정

원유 및 나프타 가격추이



국제유가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유가는 중동산 Dubai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 최근에는 55달러에서 6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WTI(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60달러를 돌파해 63-68달러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북해산 Brent 역시 WTI와 거의 비슷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국제유가는 5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해도 될 정도로 고유가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기화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까지 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원유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내보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의 국제 원유시장 동향을 볼 때 미국경제가 이라크 전쟁에 따른 부담에 허리케인 Katrina와 Rita의 타격이 더해져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연이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멈춤으로써 세계 원유 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7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은 분명해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유가로 인한 부담 때문에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들어 2006-07년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국제유가 또한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내 경제는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지속할 때나 세계경제가 침체돼 50달러 아래로 떨어질 때나 문제가 심각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지속하면 물가불안에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은 분명하고,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수출이 줄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유화학도 국제유가와 나프타가 일정부문 연동해 움직이고 있어 원료 코스트 문제가 심각하나, 그렇다고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은 석유화학제품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을 불러올 위험성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나프타 가격은 국제유가와 거의 연동해 움직이고 있으며, Dubai유 시세가 배럴당 30달러일 때 나프타 가격은 C&F Japan 톤당 300달러 수준, 배럴당 40달러일 때는 톤당 400달러, 50달러일 때는 500달러 수준이고 9월 들어서는 56달러일 때 560-580달러를 나타낼 정도로 연동성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합성수지는 기초유분 가격과의 연동성이 약하고 최종 수요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이 치솟을수록 상승률이 낮아져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월에도 나프타 가격이 톤당 600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틸렌 및 프로필렌 가격이 톤당 1000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합성수지는 PP가 1130달러 수준을 나타낼 뿐 LDPE, LLDPE, HDPE는 1030-1040달러에 머물렀다.

에틸렌 1000달러에 LDPE 및 HDPE 1130-1140달러는 Spread가 30-40달러에 불과하고 프로필렌 1000달러에 PP 1130달러도 Spread가 130달러로 최소한의 톨링 코스트인 톤당 150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5/10/3>